



6월15일
화요일

보도자료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 | | | | | | | |
|----|-------|----|-----|----|-----|---|----------|
| 실국 | 동물방역과 | 과장 | 이용보 | 팀장 | 정인제 | ☎ | 286-6750 |
|----|-------|----|-----|----|-----|---|----------|

전남도, 여름철 축산물위생관리 집중 점검 추진

-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의 집중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

전라남도가 여름 휴가철 육류 성수기를 대비해서 오는 6월 25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등 축산물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여름철을 대비하여 위생관리 취약 업체 및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식육부산물 등을 취급하는 축산물 관련 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방법은 도와 22개 시군이 일제히 점검반을 편성하여 우유, 식육 등에 대한 온도관리 등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식육·식육부산물 취급업체의 위생적 취급·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여부, 소규모 유가공업체의 미생물 안전관리 현황 및 위생관련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해당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출여부 등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검사할 계획이다.

위생감시 결과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폐기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여름철은 기온·습도가 높아 축산물의 변질 우려가 증가하고,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식육 등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에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